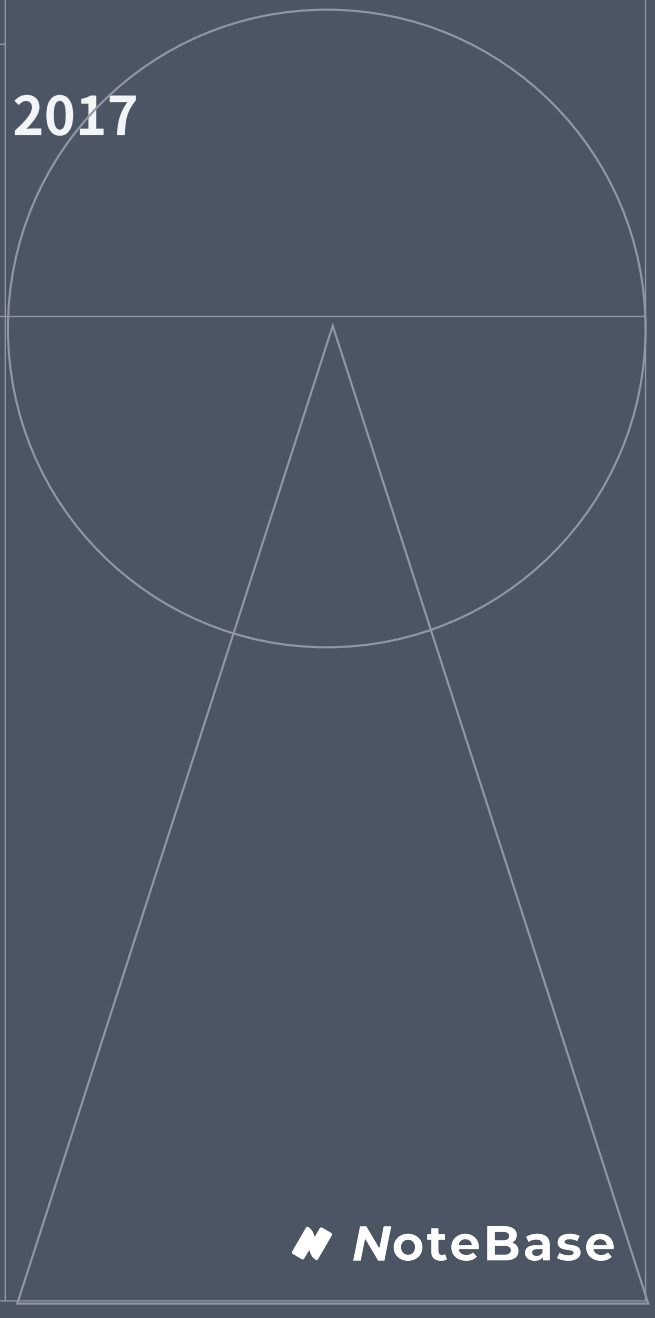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7

공무원/기상직/9급 · 국어 · 2017

문 1.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까짓것,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② 그런 같잖은 일로 입씨름할 필요는 없다.
③ 형편이 엥간하면 나도 돕고 싶네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하네.
④ 아침부터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 마침내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단어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엔간하다'는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는 뜻의 말이며, 활용형도 '엔간하면'으로 적는다.
'엥간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한편 '까짓것', '같잖다', '끄물끄물하다'는 모두 올바른 표준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까짓것'은 '별것 아닌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까짓것,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의 표기가 맞다.
② O — '같잖은'은 '같잖다'의 활용형이므로 '그런 같잖은 일'로 적는 것이 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엥간하면'이다.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는 뜻의 표준어는 '엔간하다'이므로 '형편이 엔간하면 나도 돕고 싶네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하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끄물끄물하다'는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흐려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의 표기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엥간하면'은 실제 발음처럼 들려 맞는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표준어의 기본형이 '엔간하다'이므로 활용할 때도 '엔간하면'으로 적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의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본형을 먼저 확인한다. '엔간하면'은 기본형 '엔간하다'에 어미 '-면'이 결합한 형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엥간하다(X), 엔간하다(O) — 따라서 엔간하면(O)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의 외래어들이 한국어 어휘에 유입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 보 기 >

㉠ 붇[筆], 먹[墨]
㉡ 탕건[唐巾], 담배
㉢ 바리깡, 구락부
㉣ 아질게몰[兒馬], 보라매[秋鷹]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래어가 한국어에 들어온 시기를 어원과 역사적 언어 접촉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ㄱ 붓[筆], 먹[墨] — 오래전에 중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ㄹ 아질게말[兒馬], 보라매[秋鷹] — 고려 시대 몽골어와의 접촉으로 들어온 말이다.
ㄴ 탕건[唐巾], 담배 — 근세, 곧 조선 시대에 들어온 말이다.
ㄷ 바리깡, 구락부 — 개화기 이후 일본어의 영향을 거쳐 들어온 근대 외래어이다.

따라서 유입 순서는 ㄱ → ㄹ → ㄴ → ㄷ이다. 왜 이 순서인가 하면, 고대의 중국어 접촉이 고려 시대의 몽골어 접촉보다 앞서고, 근세 중국어와 담배의 유입은 그 뒤이며, 바리깡과 구락부가 쓰이기 시작한 근대가 가장 늦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 ㄴ → ㄹ → ㄷ은 근세에 들어온 ㄴ을 고려 시대 몽골어계 어휘인 ㄹ보다 앞에 놓은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 ㄹ → ㄴ → ㄷ이다.

② O — ㄱ의 오래된 중국어계 어휘, ㄹ의 고려 시대 몽골어계 어휘, ㄴ의 근세 유입어, ㄷ의 근대 유입어 순으로 정확하게 배열했다.

③ X — ㄹ → ㄴ → ㄱ → ㄷ은 가장 오래된 ㄱ을 ㄹ과 ㄴ 뒤에 놓은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 ㄹ → ㄴ → ㄷ이다.

④ X — ㄹ → ㄱ → ㄴ → ㄷ은 고려 시대에 들어온 ㄹ을 더 오래전에 들어온 ㄱ보다 앞에 놓은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 ㄹ → ㄴ → ㄷ이다.

오답 포인트

붓과 먹이 한자 표기를 가진 익숙한 말이라는 이유로 외래어임을 놓치거나, ㄹ의 몽골어계 어휘와 ㄴ의 근세 유입어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 특히 아질게말과 보라매는 고려 시대 몽골어 접촉의 흔적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유입 순서 문제에서는 각 어휘를 유입 언어와 접촉 시기에 연결한 뒤 고대 중국어계 → 고려 시대 몽골어계 → 근세 유입어 → 개화기 이후 근대 외래어의 시간축에 놓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붓·먹은 먼저, 말·매는 고려, 탕건·담배는 근세, 바리깡·구락부는 근대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시조 중 창작 계층이 다른 것은?

①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는고.

②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하랴
말숨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ᄒᆞ노라.

③ 한송정(寒松亭) 달 밝은 밤의 경포대(鏡浦臺)에 물결 잔 제
유신(有信)한 백구(白鷗)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어떻다 우리의 왕손(王孫)은 가고 안이 오느니.

④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온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시조의 작가를 확인하여 기녀 계층의 작품과 사대부 계층의 작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녀 시조는 조선 시대 기녀가 지은 시조이며, 임에 대한 사랑·그리움·이별의 정한 등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 많다. 이 문항에서 ① 황진이, ③ 홍장, ④ 계랑은 기녀이고, ② 윤선도는 사대부 문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청산은 내 뜻이오'는 기녀 황진이의 시조이다. 이 작품을 다른 창작 계층의 작품으로 고르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③·④와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② O — '잔 들고 혼자 앉아'는 사대부 문인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에 속한다. 나머지 세 작품의 작가가 모두 기녀이므로 창작 계층이 다른 작품이다.

③ X — '한송정 달 밝은 밤의'는 강릉의 기녀 홍장이 지은 시조이다. 이 작품을 다른 창작 계층의 작품으로 고르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④와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④ X — '이화우 흩뿌릴 제'는 계랑, 곧 기녀 매창의 시조이다. 이 작품을 다른 창작 계층의 작품으로 고르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③과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네 작품 모두 임·그리움 또는 자연을 노래하는 평시조라서 내용만으로 분류하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③의 '왕손'이라는 말만 보고 사대부 작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작가는 기녀 홍장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조의 소재나 화자보다 먼저 첫 구절과 작가를 연결한 뒤 작가의 신분을 확인한다. 황진이·홍장·매창은 기녀, 윤선도는 사대부라는 대응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황진이·홍장·매창은 기녀, 윤선도는 사대부이다.

NoteBase

문 4. <보기>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와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 보 기 >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

① 10 ② 11 ③ 12 ④ 13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을 이루는 단어와 형태소의 개수를 각각 세고, 단어와 어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거나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쓰이는 말의 단위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하나의 단어로 센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접사와 어미도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센다.
'이 고기는 매우 기름지다.'의 단어는 '이/고기/는/매우/기름지다'로 5개이다. 형태소는 '이/고기/는/매우/기름/지/다'로 7개이다. 따라서 합은 1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0은 단어 5개와 형태소 7개의 합이 아니다. 틀린 수 '10'을 올바르게 고치면 '12'이다.

② X
- 11은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4개를 단어의 개수로 잘못 센 경우 나올 수 있다. 조사를 별도 단어로 세면 단어는 5개이므로, '11'은 '12'로 고쳐야 한다.

③ O
- 단어는 5개이고 형태소는 7개이므로 합은 12개이다.

④ X
- 13은 단어나 형태소를 하나 더 센 값이다. '기름지다'는 단어로는 하나이고 형태소로는 '기름/지/다'의 3개이므로, '13'은 '12'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고기는'을 띄어쓰기 단위 하나로만 보고 단어도 하나라고 판단하면 ②의 11을 고르기 쉽다. '고기는'은 어절로는 하나이지만, 단어로는 '고기'와 조사 '는'의 2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을 확인한 뒤, 각 어절에서 조사를 별도 단어로 센다.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까지 나누어 센다.

암기 포인트

조사는 붙여 쓰지만 단어로는 따로 세고, 접사와 어미는 형태소로 따로 센다.

NoteBase

문 5. 다음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넌방에서 아침잠이 뭉긋이 들었던 덕기는 그제야 눈이 띄어서,
"왜 그러니?"
소리를 치며 미닫이를 여니까, 아랫방에서 ㉠ 모친이,
"어서 사랑에 나가봐라.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셨단다."
하고 소리를 친다. 모친은 어제 와서 같이 잔 딸이 학교에 가느라고 머리를 빗는데 일어나는 길로 뒷머리를 땋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지 못했다. 한 방에 자던 여편네들도 이제야들 일어나 앉아 씩둑거리고 있다가 매무시도 채 못해서 곧 나오지들 못했던 것이다.
덕기가 바지저고리만 꿰고 뛰어나간 뒤에야 비로소 모친과 덕기 누이 덕희가 사랑으로 나갔다.
덕기 모친은 먼저 나갔던 사람들과 사랑 문간에서 마주쳤다. 수원집은 암상이 나서 못 본 척 하고 지나쳐 버린다. 늦게 나온다고 못마땅해서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니 덕기 모친도 심사가 났다.
"좀 어떠시냐? 다치시지는 않으셨니?"
그래도 노인이 빙판에 넘어졌다니 애가 타서 시서모의 뒤따른 ㉡ 며느리더러 물어보았다.
"다치신 데는 없어요. 들어가 누우셨어요."
사랑방에 누운 영감도 며느리가 늦게 나와보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래도 ㉢ 며느리는 아들보다 낫게 생각하는 터이라 내색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가 문안 겸 인사를 하니까,
"응, 허리가 좀 아프지만 별일 있겠니?"
하고 나서 손주딸을 쳐다보고 온유한 낯빛으로,
"학교 가기 곤하겠구나? 그저 잤던?"
하고 물었다. 그저 자리 속에 있어서 인제야 나왔나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머리 빗느라고 ㉣ 어머니가 막 땋는데 넘어지셨다지요."
하고 덕희는 어리광 삼아 생글 웃고 옆에 서 있는 오라비를 돌려다보고,
"오빠 같은 게으름뱅이나 이때까지 자지요."
하고 놀린다.

- 염상섭, '삼대' -

① '수원집'과 '덕기 모친'은 고부지간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
② '영감'과 '덕기 · 덕희'는 조손지간으로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이다.
③ ㉠, ㉡, ㉣은 모두 '덕기 모친'을 가리키지만, ㉢은 그렇지 않다.
④ '시서모'라는 단어를 통해 '수원집'이 '영감'의 첫째 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행동과 대화, 친족 호칭을 근거로 인물 사이의 관계와 지시 대상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같은 인물이 이름 대신 '모친', '며느리', '어머니'처럼 서로 다른 호칭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각 표현의 지시 대상은 앞뒤 행동의 연결과 대화 속 가족 관계를 함께 살펴 확인한다. 이 글에서 ㉠·㉡·㉢·㉣은 모두 덕기 모친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원집은 늦게 나온 덕기 모친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덕기 모친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심사가 났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상해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덕기는 할아버지가 넘어졌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뛰어나가고, 덕희는 할아버지에게 생글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두 손주의 걱정과 친근한 태도에서 영감과 덕기·덕희의 사이가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은 그렇지 않다'이다. ㉣ '어머니'는 덕희의 머리를 땋던 인물이며, 덕희는 덕기의 동생이므로 덕희의 어머니 역시 덕기 모친이다. 올바르게는 '㉠, ㉡, ㉢, ㉣은 모두 덕기 모친을 가리킨다'이다.

④ O — '시서모'는 남편의 서모, 곧 남편 아버지의 첩을 이르는 말이다. 덕기 모친이 수원집을 '시서모'로 인식하므로 수원집은 영감의 첫째 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의 지시 대상만 확인하고, 대화 속 '어머니'를 별개의 인물로 오인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덕희가 덕기를 '오빠'라고 부르므로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다는 가족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지칭 표현이 나오면 먼저 앞뒤 문장의 행동 주체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대화 속 호칭을 이용해 가족 관계를 연결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는 선지의 일부만 틀려도 그 선지가 정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 모친 = ㉡ 며느리 = ㉢ 며느리 = ㉣ 어머니 = 덕기 모친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부를∨조금∨더∨열심히∨할걸.
② 선생님이∨떠난∨지도∨오래되었다.
③ 키가∨클수록∨농구를∨잘한다는∨말은∨거짓이다.
④ 나는∨오늘∨저녁에∨엄마를∨도와∨요리를∨할거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어미는 어간에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문법 요소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이 문항에서 '지'와 '거'는 의존 명사이고, '-ㄹ걸'과 '-ㄹ수록'은 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할걸'의 '-ㄹ걸'은 하지 않은 일을 뒤늦게 아쉬워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할걸'처럼 붙여 쓴다.
② O — 어떤 일이 있은 뒤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떠난 지도'처럼 띄어 쓴다. '오래되었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③ O — 정도가 더해짐에 따라 다른 정도도 함께 달라짐을 나타내는 '-ㄹ수록'은 연결 어미이므로 '클수록'처럼 붙여 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할거야'이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요리를 할 거야'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할걸'과 '할 거야'는 겉모양이 비슷하지만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 ①의 '-ㄹ걸'은 종결 어미라 붙여 쓰고, ④의 '거'는 의존 명사라 앞말과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 뒤의 요소가 명사 기능을 하는 의존 명사인지, 용언의 활용을 완성하는 어미인지 먼저 판별한다.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쓰고 어미이면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 '지·거'는 띄고, 어미 '-ㄹ걸·-ㄹ수록'은 붙인다.

NoteBase

문 7.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나)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富),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라)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

① (가) - (나) - (라) - (다)
② (라) - (가) - (다) - (나)
③ (가) - (다) - (라) - (나)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심 화제의 제시, 질문과 답변, 대조 관계를 바탕으로 문단의 논리적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나) → (가) → (다)
1. (라) —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제시하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중심 주장을 밝힌다.
2. (나) — 앞 문단의 '주는 것'을 이어 받아 그 의미를 묻고, 주는 것을 포기·빼앗김·희생으로 보는 일반적 오해를 설명한다.
3. (가) — (나)에 제시된 오해를 비생산적 성격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 (다) — 비생산적 성격과 대조되는 생산적 성격에서는 주는 것이 잠재적 능력과 활동성의 표현이며 즐거움이라고 밝힌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는 (라)의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며, (가)와 (다)는 각각 비생산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차례로 대조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첫 문단에 둔 부분이 틀리다. (가)의 비생산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먼저 사랑의 능동성과 '주는 것'의 의미를 제시한 뒤 나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라) → (나) → (가) → (다)이다.

② X — (라) 다음에 곧바로 (가)를 둔 부분이 틀리다. (라)의 '주는 것'이라는 중심 주장을 (나)의 질문이 직접 이어 받고, 그 뒤에 비생산적 성격을 다룬 (가)가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라) → (나) → (가) → (다)이다.

③ X — (다)를 (나)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생산적 성격에서 주는 것의 의미를 밝히는 (다)는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나)와 비생산적 성격을 설명하는 (가) 뒤에 놓여야 한다. 올바르게는 (라) → (나) → (가) → (다)이다.

④ O — (라)가 중심 주장을 제시하고, (나)가 '주는 것'의 의미를 질문하며, (가)와 (다)가 비생산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의 관점을 대조하므로 문맥에 맞는 배열이다.

오답 포인트

(가)와 (다)가 모두 '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보고 둘의 위치만 비교하면 순서를 놓치기 쉽다. 먼저 (라)에서 중심 주제를 제시하고 (나)에서 질문과 일반적 오해를 꺼낸 뒤, 비생산적 성격의 부정적 인식인 (가)에서 생산적 성격의 긍정적 인식인 (다)로 대조가 전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 문제는 지시어와 반복어뿐 아니라 '주제 제시 → 질문·문제 제기 → 구체화 → 대조·결론'의 기능 관계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라)의 '주는 것'이 (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비생산적 성격'의 (가)와 '생산적 성격'의 (다)가 대조되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랑의 본질 제시 (라) → 주는 것의 의미 질문 (나) → 비생산적 인식 (가) → 생산적 의미 (다)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특별하고 성스럽다고 여겨 왔다. 민족주의에 짙게 물든 현대인들은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경제의 논리는 그런 언어적 민족주의를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하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언어를 바꾼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 점을 아주 또렷이 보여준다.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도, 유대인들은 줄곧 자신들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켜왔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꿋꿋이 지켜왔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실은 크게 다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여러 번 가볍게 바꾸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에 종속되었고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자연히,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바빌로니아 제국 상인들의 국제어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에 점점 깊이 침윤되었다. 마침내 기원전 2세기 경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고, 히브리어는 지식 계층만이 읽을 줄 아는 '박물관 언어'가 됐다. <성서>의 <느헤미야>는 기원전 3세기 전반에 편집되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가 산 언어이었을 때 씌어진 마지막 책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었으므로, 그들을 위한 아람어 <성서>가 나왔다. '번역' 또는 '통역'을 뜻하는 아람어 'targum'으로 불린 이 <성서>는 구전으로는 이미 기원전 6세기 말엽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기록된 것은 기원후 1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기원전 4세기 말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뒤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집권한 이집트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버리고 그리스어를 쓰게 되었다. 자연히,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에서 그리스어 번역판을 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뒤에 기독교도들의 성전이 된 그리스어 성서이다.

로마 제국이 득세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했다가 참담한 피해를 입고 흩어졌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그리스어를 버리고 그들이 이민 가서 정착한 곳의 언어를 쓰거나 이디시어나 라디노어와 같은 혼성어를 공용어로 삼았다. 자연히,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는 유대교 학자들에 의해 명맥이 이어지는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다.

① 민족과 언어의 관계는 불가분의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효용에 따라 조정되곤 한다.
② 유대인들이 갖은 핍박 속에서도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지켜온 것과 그들 고유의 언어 수호의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
③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결국은 '박물관 언어' 또는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다.
④ 유대인들은 아람어, 그리스어, 이디시어, 라디노어 등 이방의 언어로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사실과 시대·지역에 따라 사용 언어를 바꾼 사실을 구분하고, 성서 번역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본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중심 내용은 민족과 언어의 관계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과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히브리어만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았고 아람어·그리스어·이디시어·라디노어 등의 언어를 사용했다. 성서 번역과 관련해서는 아람어 타르굼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어 번역이 제시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본문은 경제의 논리가 언어적 민족주의를 압도하며, 사람들은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언어를 바꾼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민족과 언어의 관계가 경제적 효용에 따라 조정된다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② O — 유대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히브리어를 고수하지 않고 여러 언어로 바꾸어 사용했다.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고유 언어의 고수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③ O —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치며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는 소수 지식 계층만 읽는 '박물관 언어'가 되었다. 이후 로마 제국 시기에는 유대교 학자들이 히브리어의 명맥을 이어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람어·그리스어·이디시어·라디노어 등 여러 이방 언어로 성서 번역본을 만들었다는 표현이다. 본문은 아람어 타르굼과 그리스어 성서 번역만 언급하며, 이디시어와 라디노어는 유대인들이 이민지에서 공용어로 사용한 혼성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된 타르굼을 읽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본문에 등장한 언어들을 모두 '성서 번역에 사용된 언어'로 묶는 함정을 만든다. 이디시어와 라디노어는 유대인의 공용어 사례일 뿐, 이 글에서 성서 번역 언어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문에 여러 대상이 나열되면 각 대상의 역할을 구분한다. 이 문항에서는 '유대인이 사용한 언어'와 '성서를 번역한 언어'를 따로 표시한 뒤 선지의 범위가 본문보다 넓어졌는지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체성은 유지했지만 언어는 교체했다. 본문의 성서 관련 언어는 아람어 타르굼과 그리스어 번역이다.

NoteBase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명태 한 마리 놓고 ㉠ 딴전 본다.
> 그 사람은 일부러 ㉡ 딴청을 부렸다.

① ㉠의 어원적 의미는 '다른 가게'이다.
② ㉠은 비표준어이고 ㉡은 표준어이다.
③ ㉠과 ㉡의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이다.
④ ㉡은 '피우다'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딴전을 보다'와 '딴청을 부리다'의 표준어 여부, 어원, 의미 관계, 자연스러운 결합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딴전'은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을 뜻하는 표준어이며, '다른 가게'라는 어원적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딴청'은 어떤 일을 하는 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이며, '딴전을 보다', '딴청을 부리다', '딴청을 피우다'처럼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딴전'의 어원적 의미는 '다른 가게'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은 비표준어'이다. '딴전을 보다'의 '딴전'도 표준어이므로, 올바르게는 '㉠과 ㉡은 모두 표준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딴전'과 '딴청'은 모두 본래 하던 일과 관계없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④ O — '딴청을 피우다'는 '딴청'과 '피우다'가 자연스럽게 결합한 표현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덜 익숙한 '딴전을 보다'를 비표준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②의 '㉠은 비표준어'가 함정이며, ㉠과 ㉡은 모두 표준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현이 실제 표준어인지 먼저 확인한 뒤, 어원적 의미와 현재 의미를 구분하고 서술어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한다. 부정형 발문에서는 X인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다.

암기 포인트

딴전·딴청은 모두 표준어이고 유의어이다. 결합은 '딴전을 보다', '딴청을 부리다·피우다'이다.

NoteBase

문 10. 문장의 밑줄 친 부분 중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어머니는 당신께서 기른 채소를 종종 드셨어.
② 벌써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지 않니?
③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참 시설이 좋아.
④ 대영아, 조기 한 두름만 사오너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체언을 대명사와 명사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①의 '당신'만 대명사이고, ②의 '리', ③의 '학교', ④의 '두름'은 모두 명사이다.

핵심 개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수량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품사이다. '리'와 '두름'처럼 반드시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명사는 의존 명사이며, '학교'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자립 명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밑줄 친 '당신'은 앞에 나온 '어머니'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므로 나머지와 품사가 다르다. 뒤의 '께서'는 '당신'에 붙은 조사이다.
② X — 밑줄 친 '리'는 '그럴 까닭이나 가능성'을 뜻하며 '갔을'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리'를 대명사 등 다른 품사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명사이다.
③ X — 밑줄 친 '학교'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립 명사이자 보통 명사이다. '학교'를 다른 품사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명사이다. 뒤의 '는'은 조사이다.
④ X — 밑줄 친 '두름'은 생선 등을 일정한 수로 묶어 세는 단위를 나타내며 '한'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두름'을 수사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명사이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밑줄 친 '당신' 뒤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어 있어 밑줄의 범위를 잘못 보기 쉽다. 또한 ②의 '리'와 ④의 '두름'을 각각 어미나 수사로 오해하기 쉽지만, 두 말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이름을 직접 나타내면 명사이고 이미 나온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가리키면 대명사로 판단한다. 앞말의 꾸밈을 받아야 쓰일 수 있는 '리', '수', '두름' 같은 말은 의존 명사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당신'은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이고, '리·학교·두름'은 명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방식에 대하여 쓴 글이다. 해당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을 붙이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꽤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안부를 묻는 것도, 새해 인사도,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합격이나 불합격, 해고 통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행동이나 표정을 살필 일도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그 미묘한 마음의 디테일 역시 읽을 일이 없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정의 낭비가 없다. 이모티콘으로 최소한의 감정을 전달하지만 그런 문자 감정 기호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축소돼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모든 감정 기호는 사실은 위안과 안심의 기호다. 문자 기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격앙된 감정을 자제한다.
>
>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을 전하는 기호조차 귀엽게 포장된다. 정말 화를 내고 싶으면 이모티콘이 아니라 욕을 써 버리면 되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진짜 욕, 진짜 화, 진짜 슬픔, 진짜 불안을 기호화한 이모티콘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모든 감정 기호는 사실 '좋아요'의 아류일 뿐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억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다는 것이다. 문자 기호의 커뮤니케이션은 소리 기호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며, 따라서 절제와 세련됨을 요구한다.

①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② 이모티콘의 의미와 기능
③ 위안과 안심의 감정 기호
④ 감정을 감추는 세련된 기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주장과 범위를 모두 담아,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화제와 필자의 핵심 주장을 함께 담는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온라인 문자 기호를 통한 감정 표현이며, 핵심 주장은 격앙되거나 세련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제와 세련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글의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다. 올바르게는 '온라인 문자 기호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 표현에 요구되는 절제와 세련됨'처럼 중심 주장까지 드러내야 한다.
② X — '이모티콘의 의미와 기능'은 본문에 등장하는 소재만 제시할 뿐, 감정 기호의 과장과 축소를 비판하고 절제를 요구하는 글의 핵심 주장을 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온라인 감정 기호 사용에서 필요한 절제'라고 해야 한다.
③ X — '위안과 안심의 감정 기호'는 글의 일부 표현만 가져온 제목이다. 본문에서 감정 기호가 위안과 안심의 기호라는 말은 다양한 감정이 무뎌져 '좋아요'의 아류가 된 현상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획일화된 감정 기호의 한계와 감정 표현의 절제'라고 해야 한다.
④ O — '감정을 감추는'은 격앙되고 세련되지 못한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세련된 기호'는 문자 기호 커뮤니케이션이 절제와 세련됨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담는다. 글의 화제와 핵심 주장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범위가 너무 넓고, ②와 ③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말이어서 그럴듯하지만 각각 소재나 일부 내용에만 머문다. 제목은 본문에 나온 단어의 유무가 아니라 글 전체의 결론인 '온라인 감정 표현의 절제와 세련됨'을 담는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반복되는 화제를 찾고 마지막 문단의 결론을 확인한 뒤,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 선지를 고른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제목과 사례 하나만 강조한 제목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중심 화제 + 핵심 주장'이며, 넓은 주제나 부분 소재만 담은 선지는 오답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높임법의 종류가 일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보 기 >

ㄱ. 얘들아, 우리 빨리 이 과제 끝내자.
ㄴ.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ㄷ.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ㄹ.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께 여쭤보는 게 좋겠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에 쓰인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고 각 문장에 나타난 종류의 조합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 등이 쓰인다.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께'와 '드리다', '뵙다', '여쭙다' 같은 특수 어휘가 쓰인다.
상대 높임법: 문장 종결 표현을 통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ㄱ은 상대 높임법, ㄴ과 ㄷ은 주체·객체·상대 높임법, ㄹ은 객체·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에는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통한 상대 높임법만 나타나지만, ㄴ에는 '어머니께서/하셨어요'의 주체 높임법, '선생님께/드리다'의 객체 높임법, '-어요'의 상대 높임법이 모두 나타난다. 'ㄱ과 ㄴ의 종류가 일치한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두 문장에 쓰인 높임법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② O — ㄴ은 '께서, -시-'의 주체 높임법, '선생님께, 드리다'의 객체 높임법, '-어요'의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 ㄷ도 '할아버지께서는, -시-'의 주체 높임법, '뵙다'의 객체 높임법, '-습니다'의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므로 종류가 일치한다.
③ X — ㄷ에는 주체·객체·상대 높임법이 모두 나타나지만, ㄹ에는 '아버지께, 여쭤보다'의 객체 높임법과 '-어'의 상대 높임법만 나타난다. 'ㄷ과 ㄹ의 종류가 일치한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ㄹ에는 주체 높임법이 없어 두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
④ X — ㄴ과 ㄷ에는 주체·객체·상대 높임법이 모두 나타나지만, ㄱ에는 상대 높임법만 나타난다. 'ㄱ, ㄴ, ㄷ의 종류가 모두 일치한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ㄴ과 ㄷ만 높임법의 종류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의 개수가 아니라 높임법의 종류를 비교해야 한다. 특히 ㄴ의 '드리다'와 ㄷ의 '뵙다'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모두 객체 높임법이며, ㄱ의 '-자'와 ㄹ의 '-어'도 상대를 높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상대 높임법의 한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께서·-시-'로 주체 높임법을, '께·드리다·뵙다·여쭙다'로 객체 높임법을 찾고,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에서 상대 높임법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각 문장을 '주체·객체·상대'의 조합으로 표시해 같은 조합끼리 묶는다.

암기 포인트

께서·-시-는 주체, 께·드리다·뵙다·여쭙다는 객체, 종결 어미는 상대 높임법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

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일상적 경험에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깨닫는 사고의 확장 과정이 드러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복·점층·반어·역설 등 표현 방식의 개념을 구별하고, 작품의 전개와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낸 말과 실제 의도가 반대인 표현이다.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실이나 의미를 담는 표현이다. 이 작품의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먹는 주체와 대상을 뒤집어 인간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명의 순환을 드러낸 역설적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처럼 ‘무엇을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② O — 사과에서 사과나무의 여러 부분으로, 다시 햇살·바람·새소리·시간·지식·중력·우주로 먹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반어적 표현’이다. 마지막의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말한 내용과 의도가 반대인 반어가 아니라, 먹는 주체와 대상을 뒤집어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순환을 나타낸 역설적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역설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다.

④ O — 일상적인 사과 먹기에서 출발하여 사과를 이루는 자연과 시간, 우주까지 인식을 확장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명 순환의 원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사과가 나를 먹는다’를 단순히 현실과 반대되는 말로 보고 반어로 오해하기 쉽다. 반어는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 표현이지만, 이 구절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문장 속에 인간과 자연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담으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의 겉뜻과 실제 의도가 반대이면 반어로, 겉보기의 모순 속에 타당한 의미가 담겨 있으면 역설로 판단한다. 반복되는 문장 구조와 시적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겉말과 속뜻의 반대는 반어, 모순 속 진실은 역설이다. ‘내가 사과를 먹음’에서 ‘사과가 나를 먹음’으로의 전도는 생명의 순환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4.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우리 사회와 앞선 사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의 물매'가 워낙 (㉠), 번역과 통역은 큰 가치를 더하는 활동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번역과 통역에, 특히 용어들의 번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 요즘 들어 오줌을 '(㉡)'와 오줌을 '(㉢)'라는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 둘은 의미 차가 있다. 전자는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후자는 바지에 배변을 한 경우처럼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거나, 잠자다가 이불에 실례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를 뜻한다.

	㉠	㉡	㉢
①	싸므로	누다	싸다
②	뜨므로	누다	싸다
③	싸므로	싸다	누다
④	뜨므로	싸다	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게 '물매가 싸다/뜨다'를 구별하고, 배설 행위를 나타내는 '누다/싸다'의 의미 차이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매는 비탈진 정도를 뜻한다. '물매가 싸다'는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고, '물매가 뜨다'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다는 뜻이다.
'누다'는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반적인 행위를 뜻한다. '싸다'는 참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한 채 배설하는 행위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식의 물매'가 급하다는 문맥에는 '싸므로'가 맞다. 일반적인 배설 행위에는 '누다', 참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배설 행위에는 '싸다'가 맞으므로 세 빈칸이 모두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의 '뜨므로'이다. 번역과 통역이 큰 가치를 더할 만큼 지식의 격차가 급하다는 뜻이므로 '물매가 싸므로'로 고쳐야 한다. ㉡ '누다'와 ㉢ '싸다'는 적절하다.
③ X — ㉠의 '싸므로'는 적절하지만 ㉡ '싸다'와 ㉢ '누다'가 뒤바뀌었다. 일반적인 배설 행위를 가리키는 ㉡은 '누다', 참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은 '싸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의 '뜨므로'와 ㉡ '싸다', ㉢ '누다'가 모두 틀렸다. ㉠은 급한 물매를 나타내는 '싸므로', ㉡은 일반적인 배설 행위를 나타내는 '누다', ㉢은 참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배설 행위를 나타내는 '싸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오줌을 누다’와 ‘오줌을 싸다’를 구별 없이 쓰는 습관과, ‘싸다’를 값이 낮다는 익숙한 뜻으로만 아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물매가 싸다’가 경사가 급하다는 뜻임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매의 급하고 완만한 정도를 판단한다. 경사가 급하면 ‘싸다’, 가파르지 않으면 ‘뜨다’이다. 이어 배설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이면 ‘누다’, 참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한 행위이면 ‘싸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급한 물매는 ‘싸다’, 일반 배설은 ‘누다’, 실수로 한 배설은 ‘싸다’이다.

NoteBase

문 15. 논증의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선, 김홍도, 신윤복, 강희안, 장승업 등은 모두 탁월한 화가들이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지닌 민족이다.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② 지난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모두 26명이다. 그중 남학생이 18명이고 여학생이 8명이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업에 소홀했다.
→ 원천 봉쇄의 오류

③ 참된 능력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이 내세우지 않아도 그 재능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의 재능을 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 순환 논증의 오류

④ 우리 사회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대학이 유능한 전문 기능인을 길러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전인 교육보다 기능 교육이 중시되기를 사회는 대학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기능 교육만을 담당할 수는 없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며, 학문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대학이 진리 탐구를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을 때 상아탑의 이념은 없어지고 만다.
→ 논점 일탈의 오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논증의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전제에서 벗어나거나 근거를 넘어서는지를 보고, 사례와 오류 유형의 연결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적거나 대표성이 없는 사례만으로 전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이다.
원천 봉쇄의 오류: 상대의 주장을 검토하기도 전에 상대의 인격·동기 등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오류이다.
순환 논증의 오류: 결론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을 전제에 이미 포함하여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오류이다.
논점 일탈의 오류: 원래 논의해야 할 쟁점에 답하지 않고 관련이 없거나 다른 쟁점으로 논의를 옮기는 오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몇몇 뛰어난 한국 화가의 사례만으로 한국 민족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지녔다고 결론 내린다. 제한된 사례를 전체 민족으로 확대하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연결은 '원천 봉쇄의 오류'이다. 학사 경고를 받은 남학생이 18명, 여학생이 8명이라는 수치만으로는 남녀 전체 학생 수를 알 수 없어 각 집단의 학사 경고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전체 남학생 수와 전체 여학생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고자 수만으로 남학생이 더 학업에 소홀했다고 결론 내린, 불충분한 통계 비교의 오류'라고 해야 한다. 상대의 주장을 미리 불신하게 만드는 원천 봉쇄의 오류와는 다르다.
③ O — '참된 능력은 언제나 드러난다'와 '능력 있는 사람의 재능은 인정받는다'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입증할 결론을 전제로 삼았으므로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④ O — 처음 쟁점은 대학이 전인 교육보다 기능 교육을 중시해야 하는지이다. 그런데 반론은 대학의 진리 탐구와 권력의 시녀 문제로 옮겨 기능 교육의 비중이라는 원래 주장에 직접 답하지 않으므로 논점 일탈의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18명이 8명보다 많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남학생이 더 소홀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집단 간 성향을 비교하려면 각 성별 전체 인원을 분모로 한 비율이 필요하다. 또한 '원천 봉쇄'는 통계의 분모 누락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을 듣기 전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류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확인한다. 소수 사례를 전체로 넓히면 성급한 일반화, 결론을 전제에서 반복하면 순환 논증, 원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논점 일탈, 주장 검토 전에 주장자의 신뢰를 깎으면 원천 봉쇄로 판단한다. 집단 비교에서는 단순한 인원수보다 전체 인원을 반영한 비율이 제시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수에서 전체로 가면 성급한 일반화, 결론을 전제로 쓰면 순환, 쟁점을 바꾸면 논점 일탈, 말하기 전에 상대의 신뢰를 막으면 원천 봉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두 가지 강령 가운데 자연 유기성을 차용하여 그 의미를 현대문명에 맞게 부활시킨 건축운동이었다. 큰 방향은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총괄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며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차이도 보였다.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경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첫째, 표현주의가 연속되는 경향이었다. 표현주의 건축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르 코르뷔지에는 말년에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이용하여 형태 변화가 심하고 강한 인상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경향은 뉴 브루털리즘이나 표현주의로 분류된다. 표현주의 건축가 샤룬은 1963년에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을 남기는 등 전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뒤늦게 표현주의의 완성을 이루었다.
>
> 둘째, 반문명운동으로서 생태건축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의 자연 유기성 개념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이 경향은 좁은 의미에서 신표현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유기성의 차용이 자연 찬양, 자연 회귀, 자연과의 조화 등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배경으로 갖는 점에서 생태건축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열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정도와 자연과의 일체감의 정도 등이 약한 점에서 생태건축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
> 셋째, 자연 유기성에서 진보하여 자연 유기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에서 동일한 경향을 추구했던 핀스터린, 슈타이너, 멘델존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향이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건축이 되는 반면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 신표현주의에서는 자연 유기형태를 실제 건물로 구현하기 위해 세부적 기법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형태주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실제로 자연 유기형태를 빚어내는 구체적 기법에서 사선, 예각, 기하충돌, 수정체, 동굴, 폭파형태 등 다양한 형식주의 또는 형태주의 기법들이 동원된다. 자연 유기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형식주의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경향은 앞의 두 번째 경향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 – 임재석,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1945~2000)' –

①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에 속하게 된다.

② 신표현주의 건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을 보이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③ 신표현주의 건축은 기계문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기계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다.

④ 신표현주의의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신표현주의 건축의 세 경향이 공유하는 특징과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면서 기계문명에 반대하는 성격을 지닌 건축운동이다.
첫째 경향은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활용하여 표현주의를 계승한다.
둘째 경향은 자연 찬양·자연 회귀·자연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연 유기성을 받아들이며, 좁은 의미의 신표현주의이자 생태건축과 연관되는 경향이다.
셋째 경향은 자연 유기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구현하고 세부 기법을 정교하게 다듬으며, 형태주의·형식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자연 유기성을 신비주의적 자연관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둘째 경향과, 자연 유기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구현하는 셋째 경향을 구별한다. 따라서 자연 유기 형태를 반영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으로 나뉜다는 설명은 지문과 일치한다.
② O — 지문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된다고 명시한다.
③ O — 지문은 신표현주의가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 반대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기계문명을 활용했다'는 말은 이러한 한계를 가리키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이다. 지문에서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활용한 것은 첫째 경향의 특징이며, 셋째 경향은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될 뿐이다. 올바르게는 '콘크리트의 질감과 가소성은 첫째 경향에서 두드러지고, 셋째 경향도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세 경향 모두의 공통점으로 볼 수는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첫째 경향과 셋째 경향에 각각 언급된 콘크리트 사용을 '세 가지 경향 모두'의 공통점으로 확대한다. 지문에서 일부 경향에 제시된 특징을 전체 경향의 공통 속성으로 일반화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경향의 특징을 '첫째·둘째·셋째'로 나누어 표시한 뒤, 선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전칭 표현이 나오면 그 특징이 세 경향 각각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일부 경향에만 해당하면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첫째는 표현주의 계승과 콘크리트의 가소성, 둘째는 반문명·자연관과 생태건축, 셋째는 자연 유기형태의 직접 구현과 형식주의이다.

NoteBase

문 17.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이런 사례만으로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더 평등한 사회가 같은 조건의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느리게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등할수록 성장에 좋다.'는 단순한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게다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 나라의 불평등 정도와 경제 발전 사이에 반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 일본, 한국, 대만은 조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낮은데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비슷한 조건이면서 불평등이 더 심한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 불평등할수록 경제적, 사회적 지표가 더 부정적이라는 증거가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더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경제 성장을 훨씬 더 빨리 이룬 사례도 상당히 많다.
(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심지어 사회주의 시절의 동구권보다 더 평등한 핀란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편인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1960년부터 2010년 사이 핀란드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 성장률은 2.7퍼센트였던 데 반해 미국은 2.0퍼센트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인의 소득이 2.7배 오른 반면 핀란드인의 소득은 3.8배 늘었다는 의미이다.

① (다) - (나) - (라) - (가)
② (나) - (라) - (다)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나) - (가) - (라) - (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주장, 구체적 사례, 접속어와 지시어의 호응을 이용해 글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다) → (나) → (라) → (가)

1. (다): 불평등할수록 성장에 불리하다는 일반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2. (나): 일본·한국·대만의 고도성장이라는 첫 번째 사례를 든다.
3. (라): '그리고'로 앞 사례에 핀란드의 사례를 추가한다.
4. (가): '이런 사례만으로'라고 앞의 사례들을 받아,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통계 연구를 근거로 보완한다.

이 순서인 이유: (나)와 (라)는 (다)의 일반적 주장을 구체화하고, (가)의 '이런 사례'는 앞서 제시된 두 사례를 가리키므로 (가)는 두 사례 뒤에 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다)의 주장 뒤에 (나)와 (라)의 사례가 이어지고, (가)가 '이런 사례'를 받아 사례의 한계와 통계 연구를 제시하므로 흐름이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나) → (라) → (다)'이다. 구체적 사례인 (나)와 (라)가 먼저 나오고 이를 예고하는 일반적 진술인 (다)가 뒤늦게 놓였다. 올바르게는 '(다) → (나) → (라) → (가)'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가) → (라)'이다. (가)의 '이런 사례'는 (나)뿐 아니라 '그리고'로 추가되는 (라)의 핀란드 사례까지 받은 뒤 나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 → (나) → (라) → (가)'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나) → (가) → (라) → (다)'이다. (가)가 사례 제시를 중간에서 끊고, 추가 사례를 나타내는 (라)의 '그리고'도 앞 문단과 연결되지 않으며, 전체 주장을 제시하는 (다)가 맨 뒤에 놓였다. 올바르게는 '(다) → (나) → (라) → (가)'이다.

오답 포인트

(나)와 (라)가 모두 독립적인 사례처럼 보여 순서를 바꾸기 쉽다. 그러나 (라)의 첫말 '그리고'는 앞의 사례에 또 하나의 사례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고, (가)의 '이런 사례'는 앞서 축적된 사례들을 한꺼번에 받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일반적 주장과 구체적 사례를 구분한다. 그다음 '그리고'와 같은 접속어가 요구하는 앞 문단을 찾고, '이런 사례'와 같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모두 나온 뒤에 해당 문단을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주장 제시 → 사례 열거 → 지시어로 사례 회수 → 결론·보완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대군이 아뢰어 왈,
>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시니, 수이 돌아와 부모를 뵈오리니, 바라옵건대 낭랑은 만수 무강하시고 불효 등을 생각지 말으소서."
> 하더라. 인하여 하직하고 궐문을 나서매, 장안 백성 등이 또한 울며 따르니, 길이 막히고 곡성이 처량하매 일월이 빛을 잃어 슬픔을 돕더라.
> <중략>
> 이때 임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胡敵)의 옴을 기다리더라. 문득 바라본즉 호병(胡兵)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 ) 하며 소리하여 왈,
> "이 도적을 편갑(片甲)도 돌려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라. 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① 擧案齊眉　② 切齒腐心
③ 嗚呼痛哉　④ 破廉恥漢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감정과 행동이 드러나는 문맥을 파악하여 그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치부심(切齒腐心)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는 뜻으로, 몹시 분하고 원통해하는 상태를 이른다. 지문의 임경업은 세자와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호병을 보고 '분기대발'하여 모두 무찌르겠다고 하므로,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절치부심이 가장 자연스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빈축제미(顰蹙齊眉)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썹을 찌푸린다는 뜻으로, 근심하거나 언짢은 표정에 초점이 있다. 적군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무찌르려는 이 장면의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顰蹙齊眉'는 문맥상 '切齒腐心'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절치부심(切齒腐心)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일 만큼 몹시 분하고 원통해한다는 뜻이다. '분기대발', '이 도적을 편갑도 돌려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와 직접 이어지므로 적절하다.
③ X — 오호통재(嗚呼痛哉)는 '아, 슬프고 아프도다'라는 뜻으로, 죽음이나 불행을 슬퍼하며 탄식할 때 쓰는 말이다. 이 장면의 중심 감정은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적군을 향한 격렬한 분노이다. 틀린 표현 '嗚呼痛哉'는 문맥상 '切齒腐心'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파렴치한(破廉恥漢)은 염치를 모르고 뻔뻔한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빈칸 뒤의 '하며'와 연결되어 임경업의 분노한 상태를 나타내기에도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破廉恥漢'은 문맥상 '切齒腐心'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앞부분의 이별 장면에 나타난 슬픔만 보고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의 직접 문맥은 임경업이 호병을 보고 '분기대발'한 뒤 섬멸을 다짐하는 장면이므로, 빈칸 바로 앞뒤의 감정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과 가장 가까운 감정어와 행동을 먼저 찾는다. '분기대발', '도적', '무찌르리라'처럼 분노와 복수 의지가 함께 나타나면 '몹시 분하고 원통해함'을 뜻하는 절치부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치부심은 '이를 갈 절(切齒) + 마음을 썩일 부심(腐心)'으로, 몹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다.

NoteBase

문 19. (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미켈란젤로는 예술계의 위대한 거인이다. 이탈리아 인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대표작인 <피에타> 앞에 서면, 누구라도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우리 위의 저 높은 곳에 엄숙하게 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참 왜소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이 작품과 함께 더 큰 무엇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깊은 외로움에 충격을 받았다. 마리아는 아름답지만 슬픔에 잠긴 산이고, 예수는 그 아래를 흐르는 큰 강처럼 보인다. 살아 있는 마리아와 죽은 예수는 고립되어 있지만, 둘은 서로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 웬디 베게트, '웬디 수녀의 유럽 미술산책' -

(나) 미켈란젤로는 '신의 어머니는 지상의 어머니처럼 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는 움직임이 없고, 오직 내려뜨려진 왼손만이 말을 하고 있다. 절반쯤 벌린 손은 말없는 고통의 독백을 따라가는 중이다. 그것은 16세기의 감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작품은 15세기 피렌체 양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의 머리는 다른 어떤 머리와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 피렌체 사람들이 사랑했던 가늘고 섬세한 유형이다. <중략> 의상 부분은 약간 지나치게 풍성하다. 밝은 주름의 돌출부와 깊고도 그늘지게 겹친 부분들이 16세기 조각가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것이다. 뒷날에도 그렇지만 대리석은 강하게 연마되어서 대단히 반짝이는 광채를 드러낸다. 도금의 흔적은 전혀 없다.

- 하인리히 뵐플린, '르네상스의 미술' -

①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공통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동일한 감상 태도로 서로 다른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③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글쓰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시대의 차이에 따른 감상 및 비평 방법의 변화를 보여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예술 작품을 다룬 두 글의 대상과 글쓰기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며 느낀 경외심, 왜소함, 외로움 등을 드러내고 인물의 관계를 상상하는 주관적·정서적 감상이다.
(나)는 같은 작품의 자세, 양식, 옷 주름, 대리석의 광택 등 눈에 보이는 조형적 특징을 근거로 작품을 설명하는 객관적·분석적 감상이다.
두 글은 대상은 같지만 작품에 접근하여 서술하는 태도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두 글이 다루는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다. 또한 (가)는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만 (나)는 형태와 양식을 분석하므로 공통된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과 '공통된 정서'이며, 올바르게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감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다.
② X — 두 글은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피에타」를 서술하며, 감상 태도도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동일한 감상 태도'와 '서로 다른 대상'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감상 태도로 동일한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이다.
③ O — 두 글은 모두 「피에타」를 대상으로 한다. (가)는 필자의 감정과 상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나)는 작품의 형식과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글쓰기 태도가 다르다.
④ X — 두 글의 차이를 필자가 속한 시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감상·비평 방법의 변화로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시대의 차이에 따른'이며, 올바르게는 '동일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과 글쓰기 태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동일한'과 '서로 다른'의 위치를 뒤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두 글의 작품명과 작가는 같으므로 대상은 동일하고, 감정·상상 중심과 조형 분석 중심이라는 서술 방식은 서로 다르다. ④는 글에 제시되지 않은 '시대의 차이'를 차이의 원인으로 끌어들인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 문항에서는 먼저 각 글이 다루는 대상이 같은지 확인한 뒤, 감정과 상상 중심인지 또는 형태와 근거 중심인지 서술 태도를 구분한다. 선택지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대적 원인이나 변화가 추가되면 근거 없는 확대 해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상은 같은 「피에타」, 태도는 (가)의 주관적·정서적 감상과 (나)의 객관적·분석적 감상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의'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 보 기 >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주의는 과잉 주의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다양한 과업, 정보 원천과 처리 과정 사이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러한 산만한 주의의 특징이다. 그것은 심심한 것에 대해 거의 참을성이 없는 까닭에 창조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저 깊은 심심함도 허용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자아에게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① 主意 ② 主義 ③ 注意 ④ 注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주의'의 뜻을 파악하고, 같은 소리를 내는 한자어 가운데 그 뜻에 맞는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문의 '주의'는 어떤 대상에 마음을 모아 기울이는 것을 뜻하므로 한자로 '注意'라고 쓴다. '注'는 마음이나 시선을 한곳에 모은다는 뜻을, '意'는 뜻이나 마음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主意'는 주된 뜻이나 중심이 되는 생각을 가리키므로, 본문의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이다'에 쓰인 집중·유의의 뜻과 다르다. 틀린 표기 '主意'는 이 문맥에서 '注意'로 고쳐야 한다.
② X — '主義'는 일정한 신념이나 학설·행동 원칙을 뜻하므로 문맥의 '마음을 기울임'을 나타내지 않는다. 틀린 표기 '主義'는 이 문맥에서 '注意'로 고쳐야 한다.
③ O — '注意'는 마음을 한곳에 모아 자세히 살피거나 조심하는 것을 뜻한다.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문맥에 정확히 맞는다.
④ X — '注義'는 '마음을 기울여 살핌'이라는 뜻의 올바른 한자 표기가 아니다. '義'가 아니라 마음·뜻을 나타내는 '意'를 써서 '注意'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음으로는 '주의'라고 읽힐 수 있어 소리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본문의 '기울일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하는 뜻은 신념이나 원칙을 뜻하는 '主義'가 아니라 집중과 유의를 뜻하는 '注意'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에서 해당 낱말을 쉬운 말로 바꾼 뒤 한자의 뜻을 맞춘다. ‘마음을 기울여 살피다·조심하다’이면 注意, ‘신념·학설·행동 원칙’이면 主義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마음을 모아 살피는 주의는 注意, 신념과 원칙으로서의 주의는 主義이다.

NoteBase